

국립광주과학관, 반부패·청렴실천 다짐대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욱)이 최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위해 청렴조직 청렴혁신 추진단을 꾸리고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과학관장은 반부패·청렴 실행력 강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기관장을 중심으로 청렴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임직원 전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금지 사약서'를 작성하는 등 반부패 의지를 다졌다. 김선욱 관장은 "반부패·청렴 실행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과 적정성, 적법성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을 실천하고 윤리경영을 정착할 것"이며, "소통, 존중, 화합을 동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청렴기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창립 60주년 고객 사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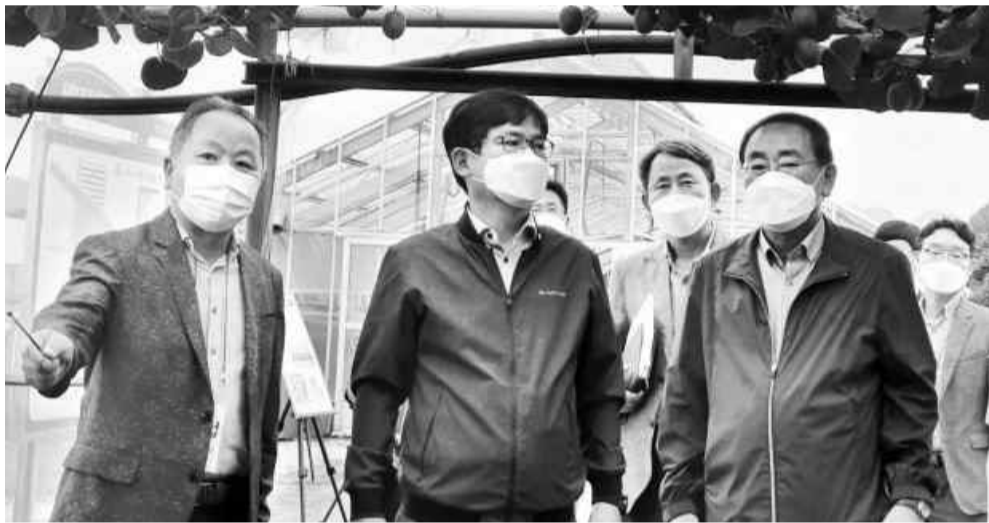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무더위에 쉬었던 '금요장터'를 최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다시 열고 농협 창립 60주년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했다. 광주본부 임직원들은 직거래 장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농산물 톨렛판' 경품 행사를 벌였다. 참여 고객들은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과 농협가공식품(인절미 스낵) 등을 받았다. 광주지역 15개 농·축협 조합원이 참여하는 금요장터에서는 기존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을 맞아 오는 8일과 15-16일에는 각각 광주지방검찰청과 지역본부에서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도 농협 창립 60주년 고객 사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레노마홈 봉사동점 좋은이웃가게 캠페인 동참



레노마홈 봉사동점(대표 최소이)이 최근 굿네이버스 전남북부 지부(지부장 강성규)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굿네 아동권리보호사업에 후원하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제공>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전남 특화작목 재배 현장 방문



허태웅(가운데)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영농현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허 청장은 박홍재 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아열대과수 연구 현황과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지역특화작목 재배 현황을 찾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광주 하이시선교회, 아동권리보호사업 후원금 300만원



광주시 광산구 하이시선교회(목사 송태호·오른쪽)가 최근 굿네이버스 호남본부(본부장 정용진)에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하이시선교회는 해외 아동 3명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후원도 약속했다. <굿네이버스 호남본부 제공>

NH농협은행 광주본부 코로나 의료진에 홍삼진액 전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김석찬·사진)는 최근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을 위한 홍삼진액 330상자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전달 행사에는 이용섭 시장과 강영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김석찬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삼진액은 광주시 5개구정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들에게 전달된다. 김 본부장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예방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사

- ◆관세청 >과장급 전보 ▲목포세관장 성용욱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35 아모르피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재) 20 팔도밥상	00 경찰수업(재)	40 이 맛에 산다 스페셜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생생정보 스페셜(재) 55 다큐멘터리 3일(재)	00 12 MBC 뉴스 20 크리켓왕 50 뽀뽀뽀 좋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박미선과 돈원리 돈해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션다반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스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덕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라더			00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3	05 동행(재)	00 KBS 뉴스타임 10 브레드 이발소 2(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백종원 클라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아무튼 출근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특집다큐 금요일에도 살아리랏(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50 빨강 구두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경찰수업	00 아무튼 출근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PD수첩	00 출천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KBS결작 다큐멘터리(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국립오페라단 푸치니 오페라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전선(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3	12:10 바닷가 사람들	19:05 머물도사
07:15 출동! 슈퍼왕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극한직업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스 e	<인사이드 아시아-신들의 땅, 네덜>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방구대장 뽀뽀	16:00 마사와 곰	<나의 고향으로 오라 2부 환상의 커피이 산다>
09:00 뿌로로 동화나라	16:15 개구쟁이 조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55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음 8월 1일 戊午)

<p>36년생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므로 주저하지 말라. 48년생 보류 한다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60년생 길정이 복함으로 작용하여 득세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84년생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면 되느니라. 96년생 단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04, 62</p>	<p>42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54년생 파급 효과까지 예상하고 판단해야겠다. 66년생 어떠한 형태로 든지 패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 하라. 78년생 원칙과 순서에 따라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90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02년생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0, 87</p>
<p>37년생 심리 위주로 판단해야 할 때이니라. 49년생 과정은 우려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과가 양호하리라. 61년생 단순한 비교는 작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73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85년생 그럴듯한 명분에 현혹된다면 관련해진다. 97년생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행운의 숫자 : 08, 69</p>	<p>43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계속되어야 한다. 55년생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취하는 형세이다. 67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깃드는 양태이다. 79년생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91년생 경험담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정확하다. 03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5, 89</p>
<p>38년생 생양의 기운으로 표리가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다. 50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62년생 힘든 만큼 비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74년생 오래 가지는 못 할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86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을 볼 필요가 있다. 98년생 노파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3, 92</p>	<p>32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의식할 필요 없다. 44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56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하게 보였던 것도 물어간다. 68년생 혼동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라. 80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92년생 우려해 왔던 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23, 72</p>
<p>39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51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성부의 관건이다. 63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75년생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식의 차이가 상당하다. 87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가 보인다. 99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43, 77</p>	<p>33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45년생 생지 했다가는 갈수록 악화 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깊이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 수 있다. 69년생 치열한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81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 뜻한 바를 이루리라. 93년생 추진하다 보면 해몽은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58</p>
<p>40년생 무관심하면 감퇴될 수밖에 없다. 52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64년생 상세한 정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6년생 다 된 마당이니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88년생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잘 살펴보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리라. 00년생 소신껏 조처하라. 행운의 숫자 : 32, 79</p>	<p>34년생 근분을 삼켜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46년생 기존의 계획에 벗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58년생 현재의 면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추세까지 감안하는 것이 맞다. 70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82년생 막힌 곳이 생기지만 쉽게 뚫을 수가 없어서 매우 답답하겠다. 94년생 필연적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4, 51</p>
<p>41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처리함이 해법이다. 53년생 손발이 적절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65년생 순발력과 마음의 여유가 절실한 요구된다. 77년생 길성이 비추고 있으니 경사가 나게 되어 있다. 89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01년생 상대의 의사에 따르는 것도 관찮다. 행운의 숫자 : 45, 91</p>	<p>35년생 일상의 체계에 충실 하는 것이 옳다. 47년생 예쁨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59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본다면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71년생 활동은 최소한도에 그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편이 더 낫다. 83년생 너무 어찌 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95년생 시작만 요란 할 뿐이지 별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33, 82</p>